



첫회 구세주와의 첫 만남과 놀라운 은혜 체험

1989년 6월, 당시 구제단 주님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구세주님을 가까이에서 알현하였을 때의 일이었다. 앞에 앉아계신 구세주의 눈에서 번개 같은 불이 순식간에 세 번이나 탕! 탕! 탕! 눈을 통하여 날아와 나의 뇌리를 때렸다. 아니, 온몸을 때렸다. 번개처럼 빨랐지만 번쩍, 번쩍, 번쩍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모습이 번개와는 다르고 마치 단식처럼 달구어진 시뻘건 불덩어리였으며, 아직도 그 장면은 눈에 선하다. 내 눈동자를 향하여 날아온 메시아 눈으로부터의 세 발의 성령 불세례!! 일순간에 전율처럼 나의 온몸 구석 구석 혈관을 타고 흘렀다. 순간적인 일이었으므로 참으로 열떨떨하긴 하였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고 밝은 성령의 빛 과외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 몸이 밝고 강력한 힘에 휩싸였다. 자비롭고 따뜻한 큰 힘이 나를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 얼어(?)붙게 하였다. "구세주(정도령님) 눈동자만 바라보라"고 전해준 당시 안내자의 말 그대로 나는 갈급한 심령으로 처분을 바라는 심정으로 정도령님의 눈동자만 뚫어지게 바라다보고 있었으므로 초발심의 향천(向天) 향지(向地) 향주양(向主仰), 마음의 문이 잘 열려 있었던 터인지라 구세주께서 단박에 그 귀중한 '하늘 빛 생명'의 열마광선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참 진리 또는 절대적 구원자와 이상세계 공동체를 그렇게도 갈망해 하던 때였으므로.

전광석화같은 놀라운 은혜의 불 탄환을 받은 나는 즉시 그 충격적인 감동으로 인하여 동행하고 데리고 간 후배에게 즉시 손과 눈빛으로 청하면서 함께 구세주께 큰 절을 올렸다. 메시아 말씀이 이어졌다. "99.9%까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100%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함께 데리고 간 청년이 다리를 저는 장애우였는데, 측은한 심정으로 "이 사람의 다리도 고칠 수 있을까요?"하고 내가 물었다. "네, 고칠 수 있지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음, 마음이라... 마음의 힘이 그렇게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일까. 마음을 강조하는 구세주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가우뚱 하며 반신반의 하면서도, "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동의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여지껏 많은 생각을 하며 살면서 의지를 달고 구를 꾀는 적은 많았으나 '마음'이라는 데까지 세



구세주의 눈으로부터 빛이 발산하고 있다

하게 화두가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는 사실상 '마음'으로 충만되어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리는 시절이 있었다. 소년시절과 학창시절을 지나면서 철학서와 사상서를 접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명 본연의 '마음'이란 것은 까마득히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운동권 참여 시절을 통하여 마음보다는 사회변화를 향한 철학사상과 사회이념에 몰두하는 청년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 이것은 구세주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이며 생명진리의 근원적인 개념인 것이었다.

성경에 "생명들을 자유케 한다"는 '진리의 성령'은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다. 흔히들 정신수련이나 명상수행 등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정치사회이념 아니면 출세지향과 상업혼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정신을 정화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나의 체험으로는 구세주가 전달하는 마음의 세계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게 크고 넓고 높은 곳에서 작용하는 '우주적인 정신세계'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였다.

불경에서 전하려는 '불심'이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 전하고 있는 나의 神(=성신)과 하나

님의 영(靈)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승려들이나 목사, 신학자들이 그 세계를 여실히 보여줄 수 없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승리제단>의 대표적인 슬로건,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에는 인간의 의식으로서 쉽게 행하기 어려운 엄청난 마음의 비밀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진리와 이상향에의 열정과 환란

나는 구도 수행의 정신을 가지고서 통일교에 입문하여 현실의 모든 것들에 회의를 느끼며 새로운 이상향을 찾고 있었다. 생활과 이상적 공동체 추구의 방편으로 어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환란을 맞고 있었다. 인간적 욕심에 젖어 일을 한 적이 많으므로 심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폐하였으며 건강도 나빠져 있었다. 구도 수행과 사업은 참으로 병행하기 어려운 두 가지 과제였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하며 속삭이를 함께하고 통일교 체계에 맞추어 종교적 수행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기심을 갖지 않고 선의로만 권면하던 나에게 매장을 지키라던 청년이 물대 물건을 팔아먹고 나를 속이기도 하였고 매장에서 음주 흡연을 절대로 금한다는 규칙으로써 취사를 함께하기로 한 또 다른 청년은 내가 없는 사이에 친구들을 불러들여 음주와 흡연으로 내 속을 썩였

다. 함께 일하던 어떤 할아버지도 내가 없는 사이에 음주로 늘 속을 썩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넓은 아량으로 모두 이해를 해주고 관용해야 했던 일들이지만, 그 당시의 내에게는 새로운 이상향 공동체 건설에 불타 있었으므로 쉽게 용서를 한다는 게 목표를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엄격한 태도를 늘 견지하였다. 그렇지만 순수한 의지가 강하였으므로 그들이 나에게 반발하여 대항하는 일은 없었다. 은혜를 입은 후에 깨닫게 된 일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설정한 가치관에 단기적인 인생 목표에 집착하며 그것의 영인성과 절대성에 대하여는 깊이 검토해 볼 겨를 없이 고집하며 허상의 가치성을 믿으며 추구하며 살아간다. 38세 당시에 나라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놀라운 체험들과 변화

당시, 나에게 음주는 거의 끊은 상황이었고 흡연은 마음이 조금할 때마다 조금씩 하던 편이었다. 음란 또는 정욕과의 싸움은 치열하여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경지를 어느 정도 예감하던 때였다고 본다. 청년시절,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새벽에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던 생활 습관은 정도령님 청년시절과 너무나도 흡사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구세주를 영접하기 전에도 빈 마음을 다소나마 실행하였던 터인지라, 이미 구세주의 영의 편린들이 성령 바람을 타고 시공을 넘어 영향을 받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시, 예의 그 전광석화 은혜의 '하나님 불'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제단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의정부 행 전철을 탔는데, 정도령님 생각으로만 꼭 차 있어서 종점까지 가셔야 내가 종점에 온 것을 비로소 알았다. 역전에 붙어뺨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즉시 전도지를 전하면서 "구세주 정도령님이 한국에 출현하셨습다" 하며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날, 이후로부터 여태 가끔씩 속이 썩으면 입에 갖다 대던 담배는 다시는 입두를 내지 못할 만큼 피와 체질이 크게 바뀌었고 사업 일을 하며 신경질 내던 일이나 화를 내는 일, 또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사라졌다. 새로운 삶의 기대와 큰 희망이 부풀어 오르며 살 맛이 나기 시작하였다.*

김광영 승사

영생의 소망

이수봉 장로/본부제단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인 것을
이러한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깨끗한 마음 의로 채울 것인가
더러운 마음 죄로 채울 것인가
긍정의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
부정의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
영생의 소망으로 채울 것인가
사망의 절망으로 채울 것인가

사망을 전제로 한 삶은
현실과 타협하는 퇴보의 삶
영생을 전제로 한 삶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삶

연단과 인내로써 현실을 극복하면
극기승자로서 영적 강자가 되어
꿈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

영생과 천국을 쟁취하는 능력자 되고 만다
인간의 마음은 물과 불처럼 양날의 검
이롭게 쓸 것인가 해롭게 쓸 것인가
이왕이면 해로운 사망의 공포보다
이로운 영생의 소망이 낫지 않는가

강력한 영생의 소망 앞에는
고통과 괴로움은 희석되고 중화되어
중도에 좌절이 없이 마침내는
인간의 이상향인 영생과 천국은 쟁취되리라

지식이 부족하면 사망의 절망 속에 살게 되고
지식이 풍족하면 영생의 소망 속에 살게 된다
영생의 소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솟구치게 한다
참 진리는 영생의 타당성을 깨닫게 하고
비진리는 사망의 타당성을 강변하게 한다
영생의 소망은 인내심을 배양하고
인내심은 영적 강자인 하나님 마음이라
사람은 원래 영생의 속성이 있었던 하나님
인류는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의 후손
나무로 말하면 아담 해와는 뿌리와 원체
70억 인류는 70억의 가지로 뻗은 한 나무의 가지
인류는 한 피 받은 한 몸이 참진리
비록 육인 몸은 각각 따로 있어도
영인 마음만은 혼연일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낙원 천국이 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인류사 6천 년의 비밀

성경에 숨겨진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힌다



진리의 학문은 신과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과연 우주만물과 더불어 인류역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자신의 존재와 우주만물과 신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한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이 종교와 학문의 시작이었으리라 본다.

간절한 마음이 결과를 만든다(1)

희망과 꿈이 없는 직장인의 삶

子曰(자왈) 學如不及(학여불급) 猶恐失之(유공실지) - 논어 태백 편 제 17장

공자가 이르기를, 배움이란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하고, 배운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새로움과 기쁨을 주는 배움에도 방법이 있다. 배움의 자세는 마치 내가 못 미치면 어떠한 하는 두려운 마음과 꼭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중·고등학생은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어 힘 없이 공부하고 대학생은 취업이라는 목표 속에 학업에 열중하게 된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자동화된 교육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인이 되면 목표가 없어 지고 꿈이 사라지게 된다. 누구도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무상으로 영어가 꼭 필요해도 무시한다. 중국어나 일어 등 제2외국어가 필요해도 외면해버린다. 보고서의 숫자가 틀려도, 계산력이 모자라도 다 무시한다. 낮은 평점의 고과를 받아도 무덤덤하다. 기분은 나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누

구 하나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족한 설득력도 무시한다. 그렇다고 일 처리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다. 몇 번이고 상사의 독촉이 있어야 보고서가 나온다. 엑셀 파일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남들 하는 만큼 할 뿐이다. 그렇다고 상사나 간부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 무엇도 똑부러지게 처리하는 게 없다.

그런데도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일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조직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한다. 그 대단한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일 처리를 대충 하는 버릇은 퇴직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조직으로 움직이는 회사에서는 일을 좀 대충한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대충의 여파가 직격탄이 되어 가정을 다 뒤흔들어놓는다.

대충의 실력으로 대충 일을 하여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회사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의 준비 없는 퇴직은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족을 밖으로 내몰게 한다. 퇴직금이 바닥난 후 변변치 못한 남편의 수입에

견디다 못한 아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다. 사회 경험이라고는 종교 활동밖에 없는 아내를 밖으로 내몰아놓고도 일에 전념을 못 하는 가장들이 많다. 아직 참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딘가에 작은 수입원이 있다는 것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대충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에 전념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 기댈 만한 구석이 있다는 증거다. 견딜 만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다.

임으로는 어렵다고 힘든 시동을 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당장 죽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운동회에 모래알갱이가 들어가도 빼내지 않는 것은 걷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 참을 만하다는 뜻이다. 굵은 모래알이 들어갔다면 걸음을 멈추고 운동화를 벗어 바로 털어냈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그런 직장인, 그런 퇴직자가 많다. 나이 마흔을 넘어 남들로부터 욕을 먹고 자신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2편에서 계속